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소속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자치행정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24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3월 1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나. 제안이유

○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

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성명	국적 (생년월일)	주요공적
1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대한민국 (55.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을 탈피하고 전남도와 경북도가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노력을 기울임 • 「경북-전남 상생교류 협약」을 체결('19. 12.)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공동대응, 철강산업 재도약 예타 통과 공동대응, 반도체 및 공공의대 유치 공동대응,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 개최 등 영호남 상생발전에 노력을 기울임 • 그 밖에도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공동대응,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 공동추진 등 지방주도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	서동욱 (전라남도 의회의장)	대한민국(69. 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의장 취임 후 경북과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건의문을 대한민국 시도의회회장협의회에서 채택하여 필요성을 알렸으며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상호 협약,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공동대응, 농작물 피해 병해충정보교류 등 영호남 중심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영진)

관련근거

-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주요내용

- 명예도민증은 대외적으로 경상북도의 위상을 제고하거나, 문화 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거나, 기타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국내 다른 시·도 인사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4명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이 수여되었으며,

연번	수여일	성명	국적	생년 (성별)	공적내용
1	2013.08.31	Kadir Topbas (카디르톱바쉬)	터키	1945 (남)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개최 유공 등
2	2014.10.29	Peter Fulde (피터 풀데)	독일	1936 (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과학 인재 육성 등 기초과학 발전 기여
3	2014.10.29	Nasanjargal Tovuudorj (나상자르갈)	몽골	1980 (여)	도 농업기술의 몽골보급 및 교류 등 협력 가교역할
4	2018.05.02	Daisaku Ikeda (이케다 다이사쿠)	일본	1928 (남)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전개

-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도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민의 날과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도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도 직영 관람지 무료입장, 도정관련 교육의 강사로 초빙, 도정백서, 도정홍보지 등 주요간행물 등의 주기적 송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의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2명으로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18년 도지사로 취임한 이래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을 탈피하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함께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영호남 상생융합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19년 12월 「경북-전남 상생교류 협약」을 체결한 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공동대응, 철강산업 재도약 예타 통과 공동대응, 반도체 및 공공의대 유치 공동대응,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호남의 실질적인 화합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습니다.
 -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4선 도의원으로서, 2022년 의장 취임 후 경북과 전남이 당면한 지역 현안에 대해 상호 공동 대응하여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경북도의회-전남도의회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북도의회와 공동으로 의료환경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건의문을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도록 하는 한편, 해양생태계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지역자원 시설세 확보에도 공동으로 노력하여 영호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에 대하여 명예도민증 수여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된 수여대상자 2명은 영호남 상생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1969년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명예도민증 수여인원이 4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 대응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상북도의 교류 협력 증진과 발전 및 위상 강화를 위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발굴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